

틀 깬 인디게임사에 투자... 게임산업 신성장 동력 찾는다

웹젠, 블랙앵커 스튜디오에 투자 총 10억 규모... 지분 16.67% 취득
스마일게이트-메타크래프트 맞손
인디게임 지원, 창작 생태계 조성



Chat GPT를 통해 생성된 인디게임사 관련 이미지.

게임 시장 성장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디게임사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인디게임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게임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게임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디게임 시장이 앞으로 더 주목될 전망이다.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개발사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844억 달러 규모로 2021년 대비 4.3% 감소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

내 대형 게임사들 또한 신작 흥행을 거둔 몇 개의 게임사를 제외하고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사들은 인디게임사를 신성장동

력의 마중물로 보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게임 전문 기업 웹젠은 인디게임 개발사인 블랙앵커 스튜디오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총 10억원 규모의 투

자를 단행하고 16.67%의 지분을 취득한 것.

블랙앵커 스튜디오는 시니어 개발자들로 구성된 2020년 첫 발을 내딛은 인디게임사다. 2021년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에서 제작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웹젠은 “블랙앵커 스튜디오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RPG(역할수행 게임) 장르뿐 아니라 인디게임을 발굴하는 노력도 이어간다”며 이어 “올해 대표 이사 직속 ‘유니콘 TF’에서 게임 장르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 산업 트렌드가 기존 각사에서 강점으로 내세워오던 MMORPG인테이제 장르다양화와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게 트렌드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투자 유치 계기를 전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인디게임사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초 스마일게이트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 메타크래프트와 인

디게임 지원과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사 업무 협약에 따라 메타크래프트는 자사의 콘텐츠 IP가 게임 등의 새로운 창작물의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 스마일게이트 또한 해당 IP를 검토하여 게임 콘텐츠화를 통한 실질적 이익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인디게임에 대한 활발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디게임 전시회에 참여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 부문의 신규 인디게임을 선보인 바 있다.

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인디게임은 K-게임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뛰어난 독창성과 창의성을 보유한 인디게임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맞손

중기부-농식품부, 업무협약
삼성전자서 스마트공장 지원 맞아
K-푸드·농기자재·펫푸드 등 포함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왼쪽부터)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K-Food(푸드), 농식품·농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지원은 삼성전자가 힘쓰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와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K-Food+'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Food+'는 K-푸드 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외에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품제조업 제조혁신'과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2가지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식품제조업 제조혁신'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금융·재정지원, 제조

혁신 노하우 전수, 해외진출·판로개척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민간 협업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은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 해외거점 상호활용, 제도 및 정책공유 등을 위해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오영주 장관은 "K-Food+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식품 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삼성, 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60억원을 출연해 4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0개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운영 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시 우대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불복절차' 생긴다

중기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의결
실증특례 불허 '재심'의 요청 가능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허가를 못받으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메뉴판식 특례(203개)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한다.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

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술 검증이 불허됐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한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외 개정사항으로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김승호 기자

기보, 경제활력 회복 정부 정책지원 소개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기보는 23일 경기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임원, 부장, 전국 영업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한 기보 역할 확대 전략'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열었다.

워크숍에선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보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융자형 R&D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구축 방안 ▲택소노미 평가보증 운영 방안 등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에선 서울대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 기보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공공·민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공기관의 AI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보는 올해 미래전략산업 및 스케일업, 청년창업, 수출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28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스타트업 공동육성 등 중소기업 데이터 경영지원

중진공-특허정보원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특허정보원과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한국특허정보원과 데이터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유 ▲기술개발, 경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 추진 ▲지식재산서비스업 영위 우수 스타트업 공동육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

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그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해온 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bigdata.kosmes.or.kr)'를 적극 활용한다. 중진공 비즈패스파인더에 특허정보원이 보유한 특허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통계, 성장경로 예측, 맞춤형 정책사업 추천 등 기업 경영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